

☞ 기자칼럼

한국 의료계의 아시아허브 지향을 위해

한국이 아시아 의료허브 또는 메디칼투어의 적격지로서 인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아랍에미리트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 대해 많은 한국의 의료종사자들은 불쾌한 심정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시각으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임상의료기술로는 아시아에서 첫번째나 두번째에 해당한다는 한국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형병원의 영리추구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 의료법규의 규제가 큰 원인을 차지한다. 내국인이 병원을 세워 외국환자를 유치하려해도 근거법이 없으니 의욕을 갖고 신사업에 도전할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놓은 것이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안에 들어와 영리법인을 설립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뉴욕장로교병원과 MD 앤더슨암센터 같은 유수의 미국 병원이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규 개정이 늦어져 2007년 11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2005년 4월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돼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진출 근거가 마



글·정 종 호
한국경제신문
건강담당 기자

련된후 무려 2년 7개월만의 일이다.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상원, 하원 등 양원제가 아닌 한국에서 이렇게 법 개정속도가 느려도 되는지 답답한 일이다. 작은 나라는 신속하고 유연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데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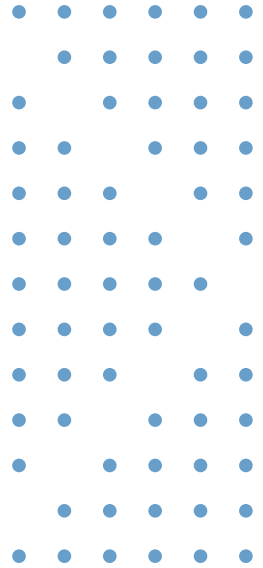
법을 개정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순탄치 않은 모양이다. 외국인이 50%이상의 투자지분을 유지해야 조세감면, 과실송금자유 등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투자액을 자유자재로 회수할수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외국투자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라도 확실히 규제를 풀 것인지, 외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한국의 의료비 수준 때문에 높은 치료비용을 매긴다면 승산이 있을지, 한국 시민사회나 노동계가 극성이라는데 문제가 없을지 등 고민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

이에 비해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떨어진다는 인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는 ‘괜찮은’ 의료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의료비용을 무기로 아시아의 부호나 구미의 보통사람들을 환자로 유치하고 있다.

필자는 2007년 11월 6일과 7일 제35차 국제병원연맹 총회 참석차 방한한 살라 파커리 인텍스홀딩(두바이 소재)의 헬스매니지먼트 담당 최고경영자와 루춘용 싱가포르 래플즈 병원장을 인터뷰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이 2~3배 폭등한 두바이는 장차 중동의 상업·교육 중심지로 떠오르는 성장가도에 비해 의료인프라는 턱없이 빈약했고 자본 흐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의사가 열심히 진료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래플즈 병원은 불과 380개의 병상으로 연간 50만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이 중 외국 환자가 35%에 이를 정도로 국제화를 이뤘다. 또 지난해 1,100만 달러의 순익을 올렸고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1만여명의 주주(의사 등 내부지분이 55%)에게 매년 투자액의 5~8%를 배당할 정도로 높은 효율을 달성하고 있었다. 규모나 의술 면에서 한국의 우수 대학병원보다 나을 것은 없어보였지만 공항에서 외국 손님이 내릴때부터 치료는 물론 숙박, 언어, 관광, 안전 등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신속 정확한 서비스가 경쟁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태국, 필리핀도 한국인이 지레짐작하는 바와 달리 외국환자에게 전혀 불편을 주지 않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 특유의 친절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외국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환자 유치에 대해 예컨대 JCI 같은 국제인증은 맞는가.(신촌세브란스 병원 한 곳만이 이 인증을 땀을 뺀다.) 외국의 의료 보험사와 협동해 환자를 유치할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있는가. 메디칼투어를 담당할 안내원, 여행가이드, 홍보대행사, 간병인, 통역사 등을 양성하고 있는가. 부족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한국의 의료 국제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KHA**

한국 메디컬투어의 SWOT분석

◆ 약점(Weakness)

- 의사소통 애로(필리핀, 인도, 싱가포르는 영어권)
- 다인종, 다문화 이해 부족
- 의료서비스 가격경쟁력 부족
- 매력적인 관광상품 부족
- 체제비가 높음(숙박 교통 음식 등)

◆ 강점(Strength)

- 높은 의료수준(의료진, 시설, 장비 등)
- 대형의료기관간 경쟁과 발전(국제화)
- 정부 병원 유관기관의 정책 의지
- 광고, 홍보, 마케팅 노하우(타 산업군)
-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세

◆ 위기(threat)

- 동남아시아 의료기관의 시장 선점
- 중동아시아(요르단, UAE 등) 의료기관 부상
-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의료수준의 발전
- 주변국의 국가적, 전략적 막대한 투자

◆ 기회(Opportunity)

- 의료제도 개선(의료광고규제 완화 등)
- 의료산업화(영리병원도입 등)
- 의료국제화(의료서비스개방 등)
- 의료관광에 대한 폭발적 관심 유도